맑은하늘사주 再會運

보내지 못한 말

사주를 몰라도 읽는 재회운
그 사람에게 닿기 전에 먼저 읽는 책



남자 님께

1979년 12월 19일 21:00 · 양력

이 책을 펴신 분께

이 책을 펴신 분은 아직 마음을 정리하는 중일 겁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잊어" 하고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잊는 게 그렇게 쉬웠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요.

이 책은 듣기 좋은 말을 해 드리려고 만든 책이 아닙니다. 돌아온다고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세 가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 왜 그 사람이 유독 잊히지 않는지
- 두 분이 어디에서 부딪히기 쉬웠는지
- 앞으로 열두 달 동안 언제 움직이고 언제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사주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말은 쓰지 않았고, 꼭 필요한 근거만 회색 상자에 따로 넣었습니다. 회색 상자는 건너뛰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보내지 못한 말'입니다. 두 분의 사주를 나란히 놓고 보니, 사주로 볼 때 두 분 사이에 가장 쌓이기 쉬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천천히 읽어 주세요. 읽다가 "이거 내 얘기인데" 하는 쪽이 나오면 접어 두셔도 좋습니다. 그 쪽이 이 책에서 가장 값진 쪽입니다.

맑은하늘사주 드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이 쪽은 이 책에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쪽입니다. 이 책은 전통 사주 해석을 바탕으로 한 참고 분석서입니다. 과학으로 검증된 예측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나 재회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연락하지 않는 것도 이 책이 권할 수 있는 좋은 결론입니다.

아래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나요?

- [ ] 그 사람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거나 말이나 행동으로 거리를 두었다
- [ ] 전화, 메신저, SNS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차단됐거나 나를 피한다
- [ ] 폭언, 폭력, 협박, 외도, 돈 문제가 있었다(내가 한 일이어도 같습니다)
- [ ] 접근금지, 고소, 소송, 합의서가 있거나 어느 한쪽이 기혼이다
- [ ] 새로운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확인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어떤 달도 연락하는 달이 아닙니다.** 이 책의 달력과 문장을 쓰지 말고 10부로 가 주세요.

> 답이 없거나 거절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달력의 뒤쪽 달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킬 것

그 사람이 원치 않는 연락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전화, 문자, SNS, 선물, 지인을 통한 전달,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기, 기다리기, 다른 번호나 새 계정으로 연락하기가 모두 들어갑니다. 상대가 원치 않는 반복 접촉은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나 경찰에 문의하세요.

그 사람의 SNS, 일정, 주변을 살피거나 지인에게 소식을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사생활입니다. 그 사람의 출생 시각을 더 알아내려 하지도 마세요.

이 책에는 그 사람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전달하지 말고, 이 풀이를 그 사람에게 말하거나 근거로 내세우지 마세요.

사주 달력에 맞춰 회사, 이사, 돈, 결혼, 건강을 정하지 마세요.

힘들 때

잠을 못 자고 일상이 무너지거나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이 책을 덮고 바로 도움을 받으세요. 어느 달이든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 정신건강 위기상담 **1577-0199**
- 폭력, 협박, 따라다님이 있었다면 재회를 살필 일이 아닙니다. 안전을 먼저 챙기세요. 여성긴급전화 **1366**, 위급하면 **112**

먼저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궁금해서 뒤쪽부터 펼치실 것 같아, 결론을 가장 앞에 둡니다.

> 사주로 보면 서로 끌리는 자리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습관이면 비슷한 일이 다시 생기기 쉽습니다.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주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지는 사주가 아니라 **그 사람의 뜻**으로 정해집니다. 사주가 말해 주는 것은 두 분이 깊은 자리에서 서로 맞물려

있어 쉽게 잊히기 어려운 사이라는 점까지입니다.

언제가 좋을까요?

앞쪽 점검표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분만 보세요. **2027년 1월**에 가벼운 안부를 한 번 건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답했고 대화가 편안했다면 **2027년 4월과 5월**에 짧은 만남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2월과 3월은 쉬는 달입니다. 답이 없었다면 1월에서 멈춥니다.



가장 큰 고비는 무엇일까요?

시기가 아닙니다. **말입니다.** 당신은 마음을 꺼내는 게 서툴고, 그 사람은 서운한 걸 속에 쌓습니다. 이 습관이 그대로면 시기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언제 연락할까"만큼 "뭐라고 말할까"에 많은 쪽을 썼습니다.

이 책 읽는 법

사주 용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책에서 쓰는 말은 다섯 개면 충분합니다.

여덟 글자

태어난 해, 달, 날, 시를 글자 두 개씩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여덟 글자입니다. 사주(四柱)팔자의 팔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뜻하는 글자

여덟 글자 가운데 태어난 날의 위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그 사람의 본바탕입니다. 당신은 쇠, 그 사람은 흙입니다.

곁 자리

태어난 날의 아래 글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곧 연인과 배우자가 앉는 자리입니다. 재회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곳입니다.

맞물림

두 글자가 서로 끌어당기는 관계입니다. 맞물린 자리가 많을수록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걸림

두 글자가 서로 부딪히는 관계입니다. 크게 부딪히는 충돌도 있고, 이유 없이 서운한 작은 걸림도 있습니다.

> 이 다섯 단어만 알면 이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말은 나올 때마다 풀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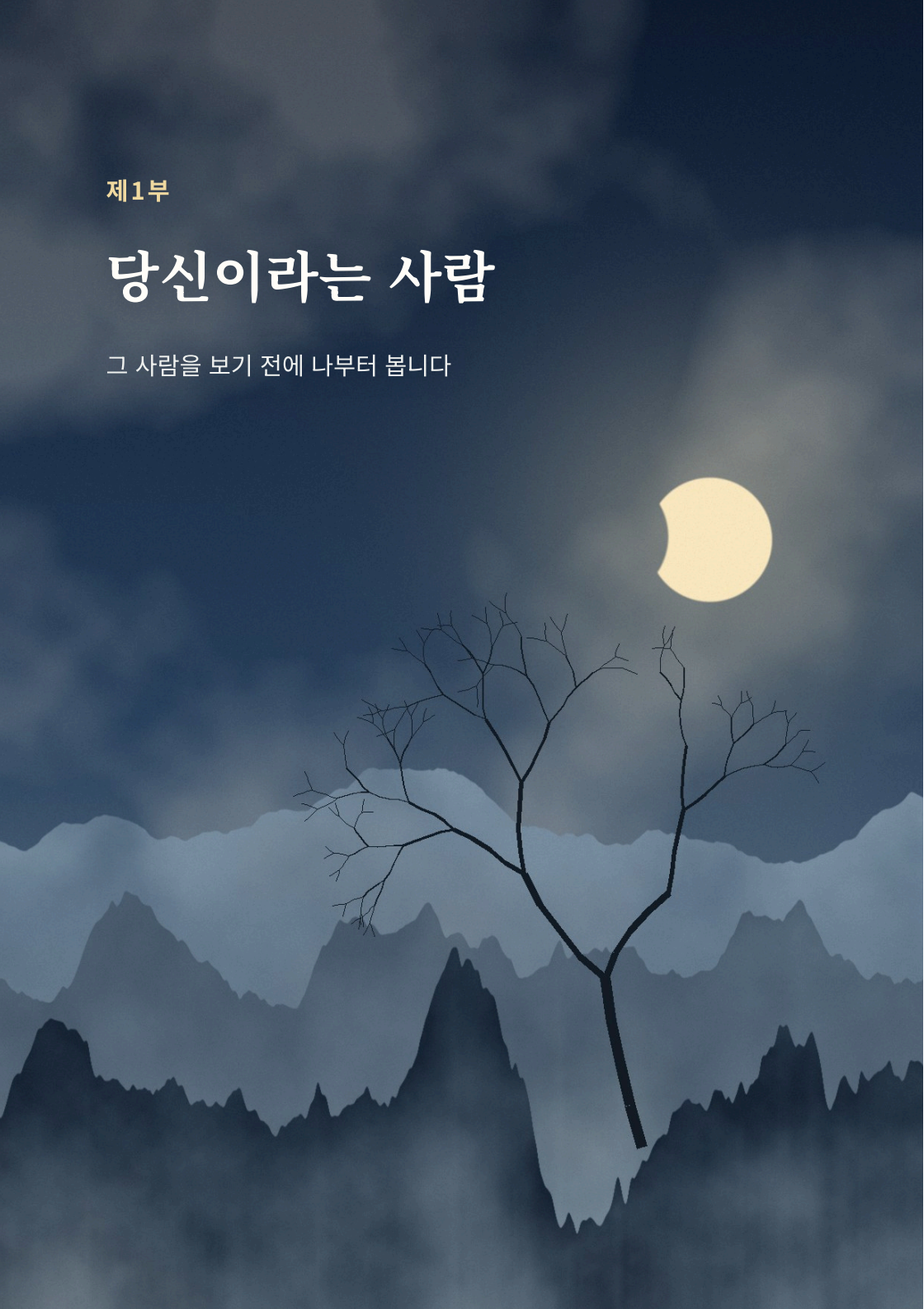
쪽마다 나오는 회색 상자는 궁금한 분을 위한 근거입니다. 다른 사주 풀이와 견주어 보실 때 쓰시면 됩니다.

사주는 미래를 정해 놓은 시간표가 아닙니다. 오래된 해석 체계로 나를 돌아보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당신이 정합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이 책은 그 마음을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그 마음에 닿을 때 덜 다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제1부

당신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보기 전에 나부터 봅니다



여덟 글자로 본 당신

재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당신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관계의 절반은 당신이니까요.

당신

태어난 시	태어난 날	태어난 달	태어난 해
丙 병	庚 경	丙 병	己 기
戌 술	申 신	子 자	未 미

그 사람

태어난 시	태어난 날	태어난 달	태어난 해
戊 무	戊 무	乙 을	己 기
午 오	子 자	亥 해	未 미

두 분의 여덟 글자입니다. 읽을 줄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쉬운 말로 풀어 드립니다. 그 사람의 태어난 시는 정확한 시각이 아니라 시간대로만 본 값입니다. 시가 다르면 그 사람의 글자 수와 일부 풀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쇠'로 태어났습니다

당신을 뜻하는 글자는 '庚(경)', 쇠입니다. 그것도 다듬기 전의 큰 쇳덩이입니다. 바로 아래 곁 자리에도 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쇠 위에 쇠가 앉아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분은 쉽게 휘지 않습니다. 말보다 결과로 보여 주려 하고, 힘든 티를 내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저 사람은 알아서 잘하지" 하고 믿습니다.

문제는 연인도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당신이 속으로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 사람은 알 길이 없습니다.

사주로 보면 일간 庚(경), 일지 申(신)(비견)입니다. 庚申(경신)일주는 자기 힘이 곧고 강합니다. 강약은 약변강으로, 약해 보여도 실제로는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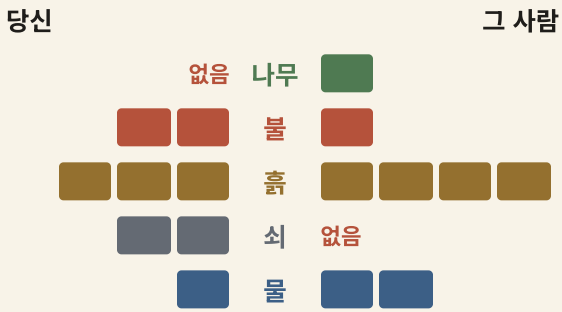
별명을 붙이면

> 답장을 속으로 열 번 쓰고 한 번도 안 보내는 사람

이 별명이 왜 나왔는지는 다음 쪽의 숫자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없는 글자

사주는 있는 글자만큼 없는 글자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여덟 글자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덟 글자 가운데 그 기운이 몇 개인지 칸으로 그렸습니다.

나무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전통 사주 풀이에서 남자 사주의 나무는 챙기고 아끼는 대상입니다. 연인이기도 하고 돈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힘**입니다.

나무가 없다고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없는 글자는 평생 찾게 됩니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기운도 바로 나무입니다.

다만 챙기는 습관이 약합니다. 기념일을 챙기고, 먼저 연락하고, 작은 것을 사다 주는 일이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 잘 안 나옵니다. 여기에 말로 꺼내는 글자도 하나뿐이고 그마저 빈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밖으로 나오는 길이 좁은 사람입니다.

사주로 보면 재성(木(목))이 0개이고 용신이 木(목)입니다. 표현을 맡는 식상은 1개(월지 子(자))이고 공망입니다. 십성은 비겁 1, 식상 1, 재성 0, 관성 2, 인성 3입니다.

생각의 글자가 세 개

대신 생각을 뜻하는 글자가 세 개나 있습니다. 이것이 흙의 힘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곱씹고 정리하고, 틀리지 않을 말을 고릅니다.

그 사이 상대는 기다립니다. 당신에게는 신중함인데 상대에게는 무관심으로 보입니다.

사주로 보면 인성이 3개입니다(년간 己(기), 년지 未(미), 시지 戌(술)).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읽으면서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 보세요. 이별 뒤 많은 분이 공감하는 항목이고, 당신의 사주에서도 나오기 쉬운 습관입니다.

- [ ] 싸운 뒤 할 말이 다음 날에야 떠오른다
- [ ] 카톡을 썼다가 지운 적이 많다
- [ ] "괜찮아"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안 괜찮았다
- [ ] 고맙다는 말보다 뭘 해 주는 쪽이 편하다
- [ ] 연인이 "나 사랑해?"라고 물으면 왜 묻는지 답답하다
- [ ] 평소엔 조용한데 화나면 한마디로 정곡을 찌른다
- [ ] 일이 바쁘면 연락이 먼저 줄어든다
- [ ] 혼자 있는 시간이 없으면 지친다
- [ ] 헤어지고 나서야 그 사람이 뭘 원했는지 알 것 같다
- [ ] 먼저 연락하고 싶은데 뭐라고 할지 몰라 그만뒀다

몇 개나 표시하셨나요? 표시한 항목이 이 책에서 당신이 먼저 살펴볼 곳입니다.

조용한 사람의 한마디가 아픈 이유

여섯 번째 항목을 눈여겨보세요. 당신 사주에는 날카롭게 바른말을 하는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자가 '빈자리'에 놓여 있어서 평소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평소엔 조용하다가 쌓이면 한 번에 나옵니다. 양이 적으니 본인은 별말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듣는 사람에게는 오래 남습니다.

혹시 그 사람에게 했던 말 가운데 지금 와서 후회되는 한마디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 말을 기억해 두세요. 9부에서 다시 씁니다.

사주로 보면 월지 子(자)는 상관이며 공망입니다. 표현의 글자가 있으나 비어 있어, 드물게 강하게 드러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방식



여덟 글자 가운데 그 성향을 맡는 글자의 수입니다.

위 그림이 두 분의 성향을 한눈에 보여 줍니다. 왼쪽이 당신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말 대신 책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에게는 자기를 다잡는 글자도 두 개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돈을 벌어 오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합니다. 당신 기준에서는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원한 건 해결이 아니라 "힘들었겠다" 한마디였을 수 있습니다.

둘, 곁에 있어도 혼자입니다

곁 자리에 자기와 같은 글자가 앉아 있습니다. 연인이 있어도 혼자만의 시간과 영역이 꼭 필요합니다. 상대에게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충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한 번도 안 하셨다면, 상대는 "나랑 있는 게 싫은가" 하고 느꼈을 겁니다.

셋, 일이 오면 사랑이 밀립니다

곁 자리에 이동과 활동의 기운이 함께 있습니다. 일이 몰리거나 어딘가로 움직일 일이 생기면 마음이 그쪽으로 쏠립니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순서가 밀린 것입니다. 받는 쪽은 그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사주로 보면 관성 2개(시간·월간 丙(병)), 일지 申(신)에 비견·역마·건록이 함께 있습니다.

> 당신은 나름대로 온 힘을 다했습니다. 다만 그 힘이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양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이 풀이는 사주에서 보이는 습관이지, 이별의 책임을 가리는 말이 아닙니다. 맞지 않으면 건너뛰세요. 맞는 곳이 있다면 바꿀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작은 숙제

작은 종이에 "그때 하고 싶었는데 못 한 말"을 한 줄만 적어 보세요. 보낼 말이 아닙니다. 그냥 적는 겁니다. 이 책을 다 읽을 때쯤 그 한 줄이 필요해집니다.



제2부

그 사람이라는 사람

내가 몰랐던 그 사람의 속마음

그 사람은 '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을 뜻하는 글자는 '戊(무)', 큰 산이나 넓은 땅 같은 흙입니다. 여덟 글자 가운데 네 개가 흙입니다. 땅 위에 땅이 겹겹이 있는 모양입니다.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렇습니다. 웬만한 일은 내색하지 않고 받아 줍니다. 곁에 있으면 편합니다. 당신이 처음에 편안함을 느꼈다면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산은 무너질 때 예고하지 않습니다.

사주로 보면 일간 戊(무), 일주 戊子(무자)입니다. 土(토)가 4개이고 강약은 신약입니다.

겉은 산인데 속은 여립니다

여기가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흙이 많아서 튼튼해 보이지만, 사주 전체로 보면 그 사람은 기운이 약한 쪽입니다. 사주 풀이로는 겉으로 단단해도 속으로 지치기 쉬운 쪽으로 봅니다. 실제 상태는 사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내던 때의 "난 괜찮아"에는 말 못 한 서운함이 섞였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헤어진 뒤 그 사람이 한 말은 말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별명을 붙이면

다 참다가 어느 날 조용히 문을 닫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없는 글자

그 사람의 여덟 글자에는 **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쇠는 말과 표현입니다. 입 밖으로 내보내는 힘입니다. 이 글자가 없으면 서운해도 말을 못 합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앞에서 당신에게 없는 글자가 나무였지요. 그 사람에게 없는 글자는 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쇠, 그 사람에게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3부에서 다시 합니다.

사주로 보면 식상(金(금))이 0개입니다. 십성은 비겁 3, 식상 0, 재성 2, 관성 1, 인성 1입니다.

자존심의 글자가 세 개

대신 자기와 같은 글자가 세 개 있습니다. 이것이 자존심입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다만 지금 연락이 없는 이유는 사주로 알 수 없습니다. 연락이 없다면 지금은 연락을 바라지 않는다고 보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정과 변화가 부딪히는 자리

태어난 시가 맞다면 그 사람의 사주 안에는 곁 자리와 앞날 자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충돌이 하나 있습니다. 안정을 바라는 마음과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있는 사주로 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의 말을 기분 탓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다시는 안 봐"라고 했다면 사주와 상관없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사주로 보면 일지 子(자)와 시지 午(오)가 子午(자오)충입니다. 시지 午(오)는 양인에 공망입니다. 여자의 시는 午(오)시로만 알고 본 값이라 실제 시가 다르면 달라집니다.

함께 지낼 때의 "괜찮아"는 다른 뜻이었을 수 있습니다. 헤어진 뒤의 말은 말 그대로 들으세요.

그 사람은 이런 신호를 보냈을 겁니다

말이 없는 사람도 신호는 보냅니다. 아래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표시해 보세요.

- [ ] 평소보다 답장이 짧아졌다
- [ ] "됐어", "아니야", "그냥"이 늘었다
- [ ] 예전엔 묻던 것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 [ ] 혼자 해결하고 나중에 결과만 말했다
- [ ] 서운한 일을 며칠 뒤에 아무렇지 않게 꺼냈다
- [ ] 다투지 않았는데 분위기가 차가워졌다
- [ ] 미래 얘기를 하지 않게 됐다
- [ ]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물으면 말을 돌렸다

이런 신호가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리가 작았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끝을 정했다면

만약 그 사람이 끝을 말했다면 당신에게는 갑작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혼자 오래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끝났든 끝낼 결정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말을 했어야지" 싶을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여덟 글자에는 그 말을 맡는 글자가 없습니다.

사주로 보면 당신이 표현에 서툰 만큼 그 사람도 서툰 쪽입니다. 두 분이 같은 곳에서 막혔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했던 것

말로 된 확인

앞에서 당신은 책임으로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곁 자리에는 생활과 현실의 글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도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돈, 시간, 약속이 지켜지는 걸 중요하게 봅니다. 당신의 책임감을 좋아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합니다. 든든해서 좋아했는데, 든든하기만 해서 외로웠던 겁니다.

기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사주에 남자를 뜻하는 나무는 태어난 달 위쪽에 바르게 놓여 있습니다. 바른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찾는 눈입니다. 기준이 쉽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주 풀이에서는 끌리는 사람이 곧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기 쉽다고 봅니다.

사주로 보면 월간 乙(을)이 정관이며, 일간 戊(무) 기준 木(목)은 관성입니다. 이 사주의 기신은 木(목)입니다. 일지 子(자)는 정재입니다.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사주에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을 뜻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사주 풀이로는 혼자 무너지기보다 주변과 함께 버티는 쪽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혼자 힘들까 봐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주로 보면 년지 未(미)에 천을귀인, 월지 亥(해)에 천덕귀인이 있습니다. 未(미)는 여자의 공망이라 천을귀인의 힘은 크게 보지 않습니다.

든든해서 좋아했는데 든든하기만 해서 외로웠던 사람

오늘의 작은 숙제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고맙다고 했던 순간을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큰일이 아닐 겁니다. 그 작은 일이 그 사람이 원했던 사랑의 모양입니다.

제3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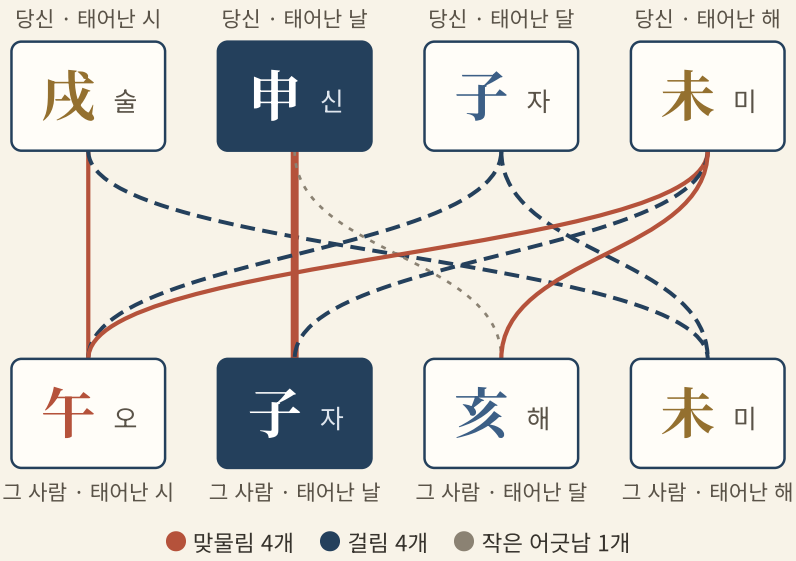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

쉽게 잊히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사주가 맞물린 세 자리

"왜 하필 그 사람일까." 이 질문을 수없이 하셨을 겁니다. 두 사주를 나란히 놓으니 답이 보입니다.



진한 칸이 곁 자리입니다. 굵은 붉은 선이 곁 자리끼리의 맞물림입니다.

붉은 선이 끌어당기는 자리, 파란 점선이 걸리는 자리입니다. 끌림도 걸림도 많습니다. 뜨겁게 끌리면서 쉽게 다치는 사이의 전형입니다.

이번 부에서는 표에 없는 위 글자의 맞물림 하나와 붉은 선 가운데 둘, 모두 세 자리를 봅니다.

첫째, 당신과 그 사람의 '바른 자리'가 묶여 있습니다

당신을 뜻하는 쇠 '庚(경)'이 그 사람의 나무 '乙(을)'과 맞물립니다. 이 맞물림은 사주에서 부부의 합이라고도 부르는 조합입니다. 전통 풀이의

표현으로 이 '乙(을)'은 당신에게는 정식 배우자를 뜻하는 글자이고, 그 사람에게는 남편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 사주 풀이에서는 끌림이 강한 조합으로 봅니다. 실제 관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끌림이 있었다면 이것입니다.

사주로 보면 남자 일간 庚(경)과 여자 월간 乙(을)의 乙庚(을경)합입니다. 庚(경) 기준 乙(을)은 정재, 戊(무) 기준 乙(을)은 정관입니다. 일간끼리는 庚(경)에게 戊(무)가 편인, 戊(무)에게 庚(경)이 식신입니다. 乙(을)은 여자 쪽 글자 하나를 두 사람 기준으로 읽은 것이며, 남자 사주에는 여자의 관성(木(목))이 없습니다.

곁 자리와 앞날 자리

둘째, 두 분의 곁 자리가 맞물려 있습니다

곁 자리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곁 자리 '申(신)'과 그 사람의 곁 자리 '子(자)'가 끌어당깁니다.

이 맞물림은 아주 일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같이 밥 먹을 때, 차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설렘보다 **편안함으로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어진 뒤에 더 힘듭니다. 불꽃같던 사랑은 잊혀도, 일상에 스며든 사람은 편의점에서도 생각납니다.

사주로 보면 남자 일지 申(신)과 여자 일지 子(자)의 申子(신자) 반합입니다. 辰(진)이 오면 申子辰(신자진) 삼합으로 완성됩니다. 다만 子(자)는 남자의 공망이라 합이 온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12월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맞물림은 **반쪽짜리**입니다. 그 사람의 곁 자리 글자가 당신 사주에서는 빈자리에 놓이고, 나머지 한 글자 '辰(진)'도 없습니다. 편안했지만 손에 잘 잡히지 않는 사람으로 남기 쉽습니다. '辰(진)'이 오는 때는 7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앞날의 방향이 닿아 있습니다

태어난 시는 앞날과 노년을 봅니다. 두 분의 시 글자도 맞물립니다. 함께 있을 때 앞으로의 그림이 그려졌던 사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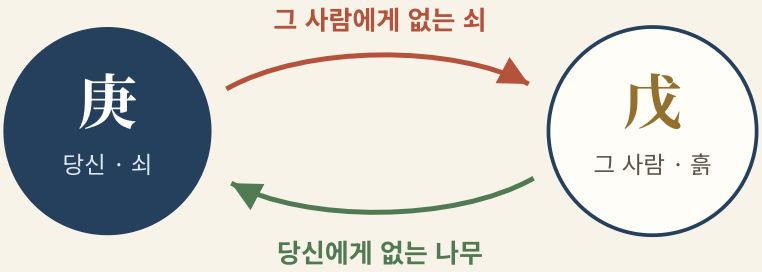
"이 사람이랑이면 늙어서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 이 자리와 닿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 사람의 태어난 시는 정확한 시각을 모르고 시간대로만 본 것이라, 이 셋째 자리는 참고로만 봐 주세요.

사주로 보면 남자 시지 戌(술)과 여자 시지 午(오)의 午戌(오술) 반합입니다. 午(오)는 여자의 공망입니다.

서로의 빈칸을 채우는 사이

없는 글자를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쪽이 두 분의 사주에서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당신에게 없는 글자는 나무입니다. 그 사람은 나무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없는 글자는 쇠입니다. 태어난 시를 午(오)시로 본 값입니다. 당신은 쇠를 두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나무는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기운입니다.

> 당신에게 없는 것을 그 사람이 쥐고 있고,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을 당신이 쥐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에서는 곁에 있을 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은 평소보다 다정해졌을 겁니다. 잘 안 하던 표현도 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당신 앞에서 평소보다 말을 많이 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 하던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던 당신 자신이 그리운 겁니다.**

채워 주는 글자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나무는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글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흙은 당신에게 부담이 되는 글자입니다.

서로를 채워 주면서 서로를 지치게도 하는 사이입니다.

사주로 보면 남자의 용신 木(목)은 여자의 기신이고, 여자의 용신 土(토)는 남자의 구신입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두 사람

두 분은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같은 노래를 듣고 같은 뉴스를 보며 자랐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많았을 겁니다. 같은 띠라서 힘든 시기도 같이 옵니다. 이것은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사주로 보면 두 분 다 己未(기미)년생입니다. 남자 용신 木(목)을 여자가 1자(乙(을)), 여자 용신 土(토)를 남자가 3자 가졌습니다.

잊히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이별 뒤 잊기 어려운 것은 흔한 일이고,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운명은 아닙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끌림이 강하다고 운명인 건 아닙니다. 끌림은 재료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좋은 재료가 있어도 불 조절을 못 하면 음식을 망칩니다. 두 분이 그랬을 수 있습니다. 재료는 훌륭했는데 조리법이 서로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 이번 부를 읽고 "역시 운명이야" 하며 바로 휴대전화를 드시면 안 됩니다. 다음 부가 더 중요합니다.

> 강한 끌림은 다시 만날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다시 잘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오늘의 작은 숙제

그 사람 앞에서 평소와 달랐던 내 모습을 하나 적어 보세요.

"평소엔 안 그러는데 그 사람 앞에서는 ( )했다."

이 빈칸이 앞으로 당신이 지키고 싶은 모습입니다. 그 사람과 다시 만나든 아니든, 그 모습은 당신 것입니다.

제4부

왜 끝났을까

같은 자리에서 또 부딪히지 않으려면



사주가 보여 주는 이별의 구조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분이 왜 헤어졌는지 그 사연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사주에 사건이 적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디에서 부딪히기 쉬운 사이인지**는 보입니다.

읽으면서 실제 일과 맞춰 보세요. 맞는 곳이 있으면 그 자리를 앞으로 조심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걸림, 말을 쌓아 두는 두 사람

사주의 글자가 부딪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분은 똑같이 말을 꺼내는 데 서툽니다.

- 당신은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 주려 합니다
- 그 사람은 마음을 **속**에 쌓아 둡니다

당신이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그 사람은 혼자 기다립니다. 그 사람이 참는 동안 당신은 아무 일 없는 줄 압니다. 둘 다 노력하고 있는데 서로 볼 수가 없습니다.

> 사주만 보면 말이 쌓이기 쉬운 사이입니다. 실제로 왜 끝났는지는 두 분만 아십니다.

만약 큰 사건 없이 멀어지셨다면 이 자리를 먼저 살펴보세요. 큰 사건이 있었다면 이 풀이로 그 일을 덮지 마세요.

사주로 보면 남자 식상은 1개이고 공망이며, 재성이 0입니다. 여자 식상은 0입니다. 표현을 맡는 식상이 양쪽 모두 약합니다.

부딪히는 세 자리

앞에서 본 걸리는 자리와 작은 어긋남 가운데 세 곳을 쉬운 말로 풀어 드립니다.

하나, 이유 없이 서운한 자리

당신의 뿌리 자리 '未(미)'와 그 사람의 곁 자리 '子(자)'가 걸립니다. 이 조합은 사주에서 원진이라고 부릅니다. 큰 사건이 없는데 괜히 밉고 서운한 관계입니다.

당신의 뿌리 자리는 집안과 어른을 뜻합니다. 당신의 가족, 부모님, 집안 행사가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명절이나 가족 문제로 냉랭해진 적이 있었나요?

사주로 보면 남자 년지 未(미)와 여자 일지 子(자)의 원진이며 해(害)이기도 합니다.

둘, 생활 방식이 부딪히는 자리

당신의 태어난 달 자리와 그 사람의 앞날 자리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당신이 자라며 몸에 밴 방식과 그 사람이 그리는 앞날이 다릅니다. 돈을 어떻게 쓸지, 어디에 살지, 언제 결혼할지 같은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사주 안에도 같은 충돌이 있어서, 당신 곁에 있을 때 그 흔들림이 더 커졌을 수 있습니다.

사주로 보면 남자 월지 子(자)와 여자 시지 午(오)의 子午(자오)충입니다. 여자 일지와 시지도 子午(자오)충입니다. 여자의 시를 午(오)시로 본 경우입니다.

셋, 작은 일이 쌓이는 자리

당신의 곁 자리 '申(신)'과 그 사람의 태어난 달 자리 '亥(해)'가 살짝 어긋납니다. 큰 사건이 아니라 연락 횟수, 약속 시간, 주말을 어떻게 보낼지

같은 작은 일에서 나타납니다.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데 합치면 "나랑 안 맞나" 하는 생각을 만듭니다.

사주로 보면 남자 일지 申(신)과 여자 월지 亥(해)의 해(害)입니다.

혹시 헤어진 시기가 이때였나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두 분은 같은 터널 안에 있습니다

두 분은 같은 양띠입니다. 그래서 흔히 삼재라고 부르는 힘든 시기도 같이 옵니다. 2025년에 들어와서 2026년을 지나 2027년에 나갑니다.



삼재라고 해서 무서운 일이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의 여유가 줄기 쉬운 시기**로 봅니다. 평소라면 넘어갈 일에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동시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엔 한 사람이 받아 주면 넘어갈 일을 아무도 받아 주지 못합니다.

> 사주로는 둘 다 여유가 줄어드는 때로 봅니다. 그때의 실제 이유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헤어진 때가 2025년에서 지금 사이라면 이 쪽을 기억해 두세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때의 이별을 당신 탓으로만 돌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사주로 보면 亥卯未(해묘미)띠의 삼재는 巳午未(사오미)년입니다. 2025 乙巳(을사) 들삼재, 2026 丙午(병오) 눌삼재, 2027 丁未(정미) 날삼재입니다.

그 사람에게 2026년은 특히 흔들리는 해입니다

올해 2026년은 그 사람의 곁 자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해입니다. 연애든 뭐든 가장 가까운 자리가 흔들리기 쉽다고 봅니다. 다만 그 사람이 내린 결정까지 운세 탓으로 돌리지는 마세요.

당신에게 올해는 일과 책임이 무겁게 내려오는 해입니다. 사랑보다 해야 할 일이 앞서기 쉬운 때입니다.

사주로 보면 2026 丙午(병오)는 여자 일지 子(자)와 충합니다. 남자에게는 편관·정관의 해입니다.

누구의 잘못이었을까

이 질문에는 사주가 답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실제 사연이 아니라 사주에서 보이는 습관입니다. 맞지 않는 줄은 지나가셔도 됩니다. 큰 잘못이 있었던 이별이라면 어느 쪽의 잘못이든 맨 앞 점검표부터 다시 봐 주세요. 당신이 먼저 끝낸 이별이라면 미안함을 전하는 일이 그 사람에게 또 짐이 될 수 있으니 6부의 세 가지 질문부터 답해 보세요.

당신의 몫일 수 있는 것

- 괜찮겠지 하고 넘어간 것

- 말보다 해결로 대답한 것
- 바쁘다는 이유로 나중으로 미룬 것
- 쌓였다가 한 번에 날카롭게 말한 것

그 사람의 몫일 수 있는 것

- 서운한 걸 말하지 않은 것
- 당신이 알 거라고 기대한 것

읽어 보니 어떠신가요? 그 사람의 몫은 당신이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건 당신 쪽 습관뿐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할 수 있는 것

당신의 쇠는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흙도 그대로입니다. 타고난 바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습관은 바뀝니다. "생각 좀 하고 말할게"라는 한마디는 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 그 사람은 혼자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 성격을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침묵 앞에 한 문장만 붙이시면 됩니다.

오늘의 작은 숙제

위의 네 줄 가운데 가장 뜨끔한 것을 하나 고르세요. 그리고 그때로 돌아간다면 뭐라고 말했을지 한 문장으로 적어 보세요.

이 문장이 사실 당신의 **보내지 못한 말**입니다.

제5부

지금 두 사람은 어디에 서 있나

10년 단위로 보면 보이는 것



인생에는 10년마다 계절이 바뀝니다

사주에서는 10년마다 인생의 계절이 바뀐다고 봅니다. 이것을 대운이라고 합니다. 지금 두 분이 어떤 계절에 있는지 보면, 왜 지금 이런 일을 겪는지가 이해됩니다.

당신	**2012년부터** 34세	**2022년부터** 44세	**2032년부터** 54세
그 사람	**2015년부터** 37세	**2025년부터** 47세	**2035년부터** 57세

진한 칸이 지금 지나는 10년입니다. 나이는 세는 나이입니다.

당신은 지금 '다시 다지는 10년'에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당신의 10년은 사주로 보면 **뺏기고 배우는 시기**입니다. 경쟁이 늘기 쉽다고 보는 때입니다. 대신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지나온 관계를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사주로 보면 남자 대운 辛未(신미)(44세~)입니다. 천간은 겁재, 지지는 정인입니다. 대운의 나이는 세는 나이입니다.

그 사람은 '입이 열리는 10년'에 막 들어섰습니다

그 사람에게 없던 글자가 쇠, 곧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시작된 그 사람의 10년에 **바로 그 쇠가 들어왔습니다.** 사주 풀이로는 말의 기운이 드는 10년입니다.

전에는 참았을 일을 꺼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본바탕이 바뀌는 건 아니라, 먼저 말을 꺼내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사주로 보면 여자 대운 庚辰(경진)(47세~, 세는 나이)입니다. 천간은 식신, 지지는 비견입니다. 辰(진)은 두 분의 일지 申(신)·子(자)와 함께 申子辰(신자진)을 이룹니다. 대운의 辰(진)은 10년의 바탕이고, 달의 辰(진)이 오면 세 글자가 눈앞에 모이는 때로 봅니다. 庚(경)은 여자 월간 乙(을)과 합으로 묶여 힘을 약하게 보기도 합니다.

사주로 본 흐름일 뿐, 그 사람이 실제로 달라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올해와 내년의 날씨

대운이 계절이라면 해마다 오는 운은 그해의 날씨입니다.

2026년, 두 분 다 비바람 속입니다

당신: 일과 책임이 무겁게 내려옵니다. 마음이 있어도 몸이 못 움직이는 해입니다.

그 사람: 곁 자리가 흔들리기 쉬운 해로 봅니다. 다만 그 사람이 내린 결정은 그 사람의 결정으로 존중해 주세요. 스스로 일어나는 힘은 들어옵니다.

2027년,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당신: 양띠 해이고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기운이 있습니다. 다만 삼재의 마지막 해이고 부담이 되는 글자도 함께 옵니다. 올해보다 조금 나아지지만 서두를 때는 아닙니다.

그 사람: 서운함이 다시 올라오는 자리가 있어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곁 자리를 끌어당기는 달이 있습니다.

사주로는 두 분 다 2027년에 삼재가 끝나고, 2028년부터 부담이 덜해진다고 봅니다.

사주로 보면 2027 丁未(정미): 남자 정관·정인, 천을귀인, 날삼재. 未(미)는 남자의 구신이고 월지 子(자)와 원진·해입니다. 여자 정인·겁재, 일지 子(자)와 원진. 여자에게 火(화)(丙午(병오)의 丙(병)·午(오), 丁未(정미)의 丁(정))는 희신입니다.

2028년

2028년은 '申(신)'의 해입니다. 그 사람의 곁 자리와 맞물리는 글자입니다. 다만 이 풀이는 그 사람이 스스로 연락해 올 때만 뜻이 있습니다. 답이 없었던 관계에 다시 연락할 근거가 아닙니다.

사주로 보면 2028 戊申(무신)의 申(신)이 여자 일지 子(자)와 반합합니다.

없던 나무가 들어오는 해

당신에게 없던 나무가 해마다의 운으로 들어오는 때는 2034년과 2035년입니다. 다만 2034년의 글자는 당신의 곁 자리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2035년의 글자도 곁 자리에 걸려서, 좋기만 한 해는 아닙니다. 그래도 뜻은 분명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사랑이 들어올 자리는 앞으로도 있습니다. 재무 판단의 근거로는 쓰지 마세요.

사주로 보면 2034 甲寅(갑인)은 일주 庚申(경신)과 甲庚(갑경)충·寅申(인신)충, 2035 乙卯(을묘)의 卯(묘)는 일지 申(신)과 원진입니다.

제6부

정말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

좋은 말 대신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남아 있는 것과 걸리는 것

두 분의 사주에서 보이는 재료를 저울에 올려 보았습니다. 이것은 확률이 아니고,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 주지도 않습니다. 재회 확률을 숫자로 말하는 곳이 있다면 의심하셔도 좋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퍼센트로 나오지 않습니다.

끌어당기는 재료	멀어지게 하는 재료
2027년 4월에 곁 자리 맞물림	그 사람의 곁 자리가 흔들리는 시기
그 사람에게 말의 기운이 듦	생활 방식이 부딪힘
서로에게 없는 글자를 가짐	집안 문제가 걸릴 수 있음
곁 자리끼리 끌어당김	둘 다 먼저 숙이기 어려움
끌림이 강한 글자로 맞물림	둘 다 말을 쌓아 두는 습관

> 끌림은 재료일 뿐입니다.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은 대화 습관입니다.

부딪히는 글자는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큰 싸움이 되느냐는 습관이 정합니다. 바꿀 것은 **대화 방식**입니다. 그 습관은 그 사람이 돌아오든 아니든 당신에게 남습니다.

재회가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시도해 볼 만합니다

- 헤어진 이유가 표현 부족, 오해, 바쁨 같은 것이었습니다
- 그 사람이 상처받았다고 말한 일이 없습니다
- 어느 경로도 차단되지 않았고 그 사람이 나를 피하지 않습니다
- 내가 무엇을 바꿀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멈추는 쪽이 낫습니다

- 맨 앞 점검표에 하나라도 해당합니다
- 다시 만나면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상대의 뜻이 먼저**입니다.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기, 기다리기, 선물 보내기, 지인을 통해 전하기, 반복 전화와 메시지는 한 번이라도 하지 마세요. 재회 노력이 아닙니다. 상대에게는 두려움이고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먼저 물어볼 세 가지

휴대전화를 들기 전에 이 세 질문에 답해 보세요.

첫째, 그 사람이 그리운 건가요, 혼자인 게 힘든 건가요? 둘은 다릅니다. 혼자인 게 힘들어서 돌아가면 같은 이유로 또 힘들어집니다.

둘째, 다시 만나면 뭐가 달라지나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 아직 때가 아닙니다.

셋째, 거절당해도 내 일상이 유지되나요? 그 사람의 답장에 내 하루가 달려 있다면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7부

앞으로 열두 달 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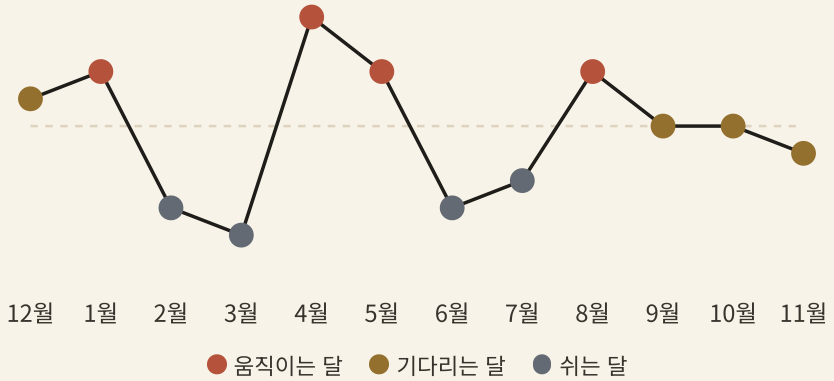
이번 달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한눈에 보는 열두 달

두 분의 곁 자리에 그달의 글자가 어떻게 닿는지 전통 풀이 규칙으로 표시했습니다. 맞물리면 위로, 부딪히면 아래로 갑니다.

이 달력은 맨 앞 점검표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분만을 위한 것입니다. 해당한다면 어떤 달도 연락하는 달이 아닙니다. 답이 없거나 거절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위로 갈수록 두 사람의 곁 자리가 맞물리는 달, 아래로 갈수록 부딪히는 달입니다.

12월 기다리는 달	**1월** 움직이는 달	**2월** 쉬는 달	**3월** 쉬는 달
4월 움직이는 달	**5월** 움직이는 달	**6월** 쉬는 달	**7월** 쉬는 달
8월 움직이는 달	**9월** 기다리는 달	**10월** 기다리는 달	**11월** 기다리는 달

달력 보는 법

움직이는 달은 움직여 볼 수 있는 달입니다. 1월은 안부 한 번까지입니다. 4월과 5월은 1월에 그 사람이 답했고 대화가 편안했던 분만, 8월은 다시 만나고 있는 분만 해당합니다.

기다리는 달에는 먼저 움직이지 않되, 연락이 오면 받습니다.

쉬는 달에는 큰 대화와 결정을 피합니다. 사주로는 다툼이 커지기 쉬운 달로 봅니다.

사주의 달은 절기로 바뀌니, 달이 바뀌고 일주일쯤 지난 뒤에 움직이시면 됩니다.

좋은 달이라고 그 사람이 반드시 답하는 건 아닙니다. 달력은 사주 풀이일 뿐, 그 사람의 뜻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주로 보면 달의 등급은 달의 지지와 두 사람 일지만으로 정했습니다. 합·반합이면 올리고, 충·형·원진이면 내리며, 작은 어긋남인 해는 조금만 내렸습니다. 합이면서 형인 글자(巳申(사신))는 합으로 세고 긁힘은 본문에 단서로 적었습니다. 원진이면서 해인 글자는 원진으로만 셉니다. 그달 글자가 어느 한쪽의 공망(일주 기준)이면 그쪽의 합은 절반으로 봅니다. 일지 밖의 걸림은 등급을 바꾸지 않고, 그달의 행동을 얼마나 작게 할지 정할 때 씁니다. 월은 절기 기준입니다.

12월

2026

기다리는 달 · 庚子(경자)

쓰고 보내지 않는 달



연말입니다. 술자리가 많고, 거리에는 연인이 많고, 옛날 사진이 자꾸 뜨는 달입니다. **마음이 가장 크게 흔들리기 쉬운 달입니다.**

이달에는 당신의 곁 자리가 움직여서 그 사람이 많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 맞물리는 글자가 당신 사주에서 비어 있는 글자입니다. 쉽게 말해 마음은 뜨거운데 그 마음에 실체가 없습니다. 이달의 연락은 마음이 앞서기 쉽습니다.

이달에 할 일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세요. **보내지 않을 편지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쓰세요. 억울한 것도, 미안한 것도, 보고 싶은 것도요. 그리고 봉투에 넣어 서랍에 두세요. 석 달 뒤에 꺼내 봅니다.

이달에 하지 말 것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의 연락입니다. 받는 사람은 "외로워서 보냈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사주로 보면 2026년 12월 庚子(경자): 子(자)가 남자 일지 申(신)과 반합이지만 남자 사주의 공망입니다.

1월
2027

움직이는 달 · 辛丑(신축)

첫 안부를 한 번 건네는 달



새해 인사가 조금 지나간 뒤, **1월 중순 이후**가 좋습니다. 이달에는 그 사람의 곁자리가 열립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곁에 나타나는 기운도 두 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달에 할 일

맨 앞 점검표에 해당하지 않고 6부의 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8부에 나오는 첫 문장 가운데 하나를 골라 **딱 한 번** 보낼 수 있습니다. 만나자는 말은 넣지 않습니다. 사과도 길게 하지 않습니다. 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답이 없으면

이 안부가 마지막 연락입니다. 답이 없는 것도 답입니다. 다시 보내지 않고, 4월과 5월에도 만남을 묻지 않습니다. 뒤쪽 달력은 당신의 일상을 돌보는 데만 쓰세요.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해 올 때만 달라집니다.

답이 오면

고맙다고 짧게 답하세요. 대화는 그 사람이 편한 만큼만 이어 갑니다. 다음 연락은 그 사람이 먼저 하거나, 대화가 편안했다면 4월에 합니다.

사주로 보면 2027년 1월 辛丑(신축): 丑(축)이 여자 일지 子(자)와 子丑(자축)합이고 두 사람 모두에게 천을귀인입니다. 丑(축)은 남자의 공망이며 남자 년지 未(미)와 충, 시지 戌(술)과 형이라, 안부 한 번까지만 권합니다.

2월
2027

쉬는 달 · 壬寅(임인)

내 자리를 지키는 달



이달의 글자가 당신의 곁 자리를 정면으로 칩니다. 일이 바뀌거나 이동할 일이 생기거나 몸이 지칠 수 있습니다. 마음도 예민해집니다.

사랑을 뜻하는 나무 기운이 들어와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쉬운 달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 마음이 앞서기 쉽습니다. 1월에 답장을 받았다면 더 그렇습니다. **"이제 만나자"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달에 할 일

몸을 쓰세요. 산이든 헬스장이든 좋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나무 기운은 움직이고 자라는 기운입니다. 아침에 걷기만 해도 됩니다.

이달에 하지 말 것

- 그 사람에게 긴 메시지 보내기
- 큰 결정을 혼자 서둘러 내리기

그 사람의 SNS를 들여다보거나 공통 친구에게 소식을 묻는 일은 이달뿐 아니라 언제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사생활입니다.

사주로 보면 2027년 2월 壬寅(임인): 寅(인)이 남자 일지 申(신)을 충합니다. 천간 壬(임)은 식신, 지지 寅(인)은 편재입니다.

3월
2027

쉬는 달 · 癸卯(계묘)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달



이달에는 그 사람의 본바탕 글자가 끌어당겨집니다. 사주로는 말을 걸고 싶은 기운으로 봅니다. 그런데 곁 자리는 긁히고, 당신의 곁 자리에도 서운함의 글자가 닿습니다.

연락이 없는 것이 보통이고, 기다릴 근거는 없습니다. 혹시 연락이 오더라도 대화가 꼬이기 쉬운 달입니다.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오면

반갑게 답하되 무거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잘 지내? 그냥 생각나서.

나도 잘 지내. 연락 줘서 고마워.

연락이 없으면

12월에 쓴 편지를 꺼내 읽어 보세요. 몇 줄은 부끄러울 겁니다. 이제 그 편지에서 **딱 한 문장**만 남겨 보세요. 1월에 답을 받았고 불편한 기색이 없었다면 다음 달에 쓸 문장입니다. 답이 없었다면 보낼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록입니다.

사주로 보면 2027년 3월 癸卯(계묘): 癸(계)가 여자 일간 戊(무)와 합, 卯(묘)는 여자 일지 子(자)와 형, 남자 일지 申(신)과 원진입니다.

4월
2027

움직이는 달 · 甲辰(갑진)

얼굴을 보자고 물어볼 수 있는 달



3부에서 말씀드린 반쪽 맞물림의 나머지 한 글자 '辰(진)'이 **이번 달입니다.** 사주 풀이로는 열두 달 가운데 곁 자리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때입니다. 그 사람의 뜻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이달에 할 일

1월 안부에 그 사람이 답했고 대화가 편안했던 경우에만 짧은 만남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답이 없었다면 이달에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저녁보다 낮, 술보다 커피, 두 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장소는 그 사람이 편한 곳으로 정하게 합니다.

이달의 위 글자는 당신의 쇠와 부딪혀 마음이 앞서기 쉽습니다. 문장은 8부를 따라 주세요.

거절당하면

"알겠어, 말해 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로 끝내세요. 이유를 묻지 마세요. 답이 없거나 '바빠', '나중에'라고 해도 거절로 받아들이세요. 다시 제안하지 않습니다.

사주로 보면 2027년 4월 甲辰(갑진): 辰(진)이 남자 일지 申(신)·여자 일지 子(자)와 申子辰(신자진) 삼합을 이룹니다. 천간 甲(갑)은 남자 일간 庚(경)과 충이고 여자에게 편관입니다. 辰(진)은 남자 시지 戌(술)과 충, 여자 월지 亥(해)와 원진이라 한 번의 짧은 만남까지만 권합니다.

5월
2027

움직이는 달 · 乙巳(을사)

약속을 작게 만드는 달



당신의 곁 자리가 열리고, 당신을 뜻하는 글자가 이달의 글자와 맞물립니다. 2월과 달리 이번에는 끌어당깁니다. 다만 이 맞물림에는 긁힘도 섞여 있어 급하게 굳히면 탈이 나기 쉽습니다. 사랑을 뜻하는 나무도 들어옵니다. 당신 쪽 인연의 기운이 움직이는 달이고, 그 사람의 곁 자리에는 이달의 글자가 닿지 않습니다.

4월에 만났다면

그 사람이 또 만나도 좋다고 말한 경우에만 두 번째 만남을 가지세요.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라고 묻지 마세요.

대신 **작은 약속**을 하나 물어보세요. "다음 주에 전화해도 될까?"처럼 지킬 수 있는 약속입니다. 좋다고 하면 정확히 지키세요. 당신의 강점은 책임입니다.

4월에 만나지 못했다면

다시 제안하지 않습니다. 답이 없거나 '바쁘다', '나중에'라고 했다면 그것을 거절로 받아들이세요. 그 사람이 먼저 날을 잡아 온다면 그때 답하면 됩니다.

사주로 보면 2027년 5월 乙巳(을사): 乙(을)이 남자 일간 庚(경)과 합, 巳(사)가 남자 일지 申(신)과 합이며 巳申(사신)은 형·파이기도 합니다. 乙(을)은 정재입니다. 巳(사)는 여자 월지 亥(해)와 충, 남자 시지 戌(술)과 원진이라 작은 약속까지만 권합니다.

6월
2027

쉬는 달 · 丙午(병오)

싸우지 않는 것이 목표인 달



이달의 글자가 그 사람의 곁 자리를 정면으로 칩니다. 당신의 태어난 달 자리도 함께 칩니다. 4부에서 본 생활 방식의 충돌이 그대로 올라오는 달입니다.

잘되어 가던 사이라면 **처음으로 크게 다툴 수 있는 달**입니다. 돈, 시간, 가족, 앞날 얘기가 위험합니다.

다시 만나고 있다면

이달에는 앞날 이야기를 미루세요. 싸움이 시작되면 이렇게 말하세요.

나 지금 말하면 또 날카롭게 할 것 같아. 내일 얘기해도 될까?

지금까지 잘 하지 못했던 말일 겁니다. 이 한 문장이 다툼의 끝을 바꿉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반드시** 다시 말을 꺼내세요. 침묵으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만나고 있지 않다면

이달에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사소한 반응에 의미를 찾지 마세요. 당신의 일에 집중하세요.

사주로 보면 2027년 6월 丙午(병오): 午(오)가 여자 일지 子(자)와 남자 월지 子(자)를 충합니다.

7월
2027

쉬는 달 · 丁未(정미)

서운함을 꺼내 보는 달



두 분이 태어난 해의 글자가 돌아오는 달입니다. 그 사람의 곁 자리에는 '이유 없이 서운한' 걸림이 닿습니다. 큰 사건은 없는데 마음이 싸늘해지기 쉽습니다.

다시 만나고 있는 분만 해당합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말수가 줄어든다면, 예전 같으면 지나쳤을 그 신호를 이번에는 잡으세요. 만나고 있지 않다면 이달에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말수가 줄어든 것 같아서. 내가 뭐 놓친 거 있어?

답이 "아니야"여도 괜찮습니다. 물어본 것 자체가 예전과 달라진 점입니다. 답을 캐묻지 말고 "그래, 얘기하고 싶으면 언제든 해" 하고 물러나세요.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이달에는 당신에게 도와주는 사람의 기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힘들 때 이달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어느 달이든 믿을 만한 친구나 상담사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으세요. 그 사람과 함께 아는 친구는 피하세요.

사주로 보면 2027년 7월 丁未(정미): 未(미)가 여자 일지 子(자)와 원진·해입니다. 未(미)는 두 분의 년지이며 천을귀인입니다. 未(미)는 여자의 공망입니다.

8월
2027

움직이는 달 · 戊申(무신)

이어 온 사이를 확인하는 달



그 사람의 곁 자리가 다시 열립니다. 4월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이달은 다시 만나고 있는 분을 위한 달입니다.

만나고 있다면

앞으로의 이야기를 꺼내 볼 수 있는 때입니다. 다만 "다시 사귀자"보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어?"라고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말할 차례입니다.

만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먼저 연락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에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1월이나 4월에 답이 없었다면 이미 답을 들은 것입니다. 10부로 넘어가세요.

사주로 보면 2027년 8월 戊申(무신): 申(신)이 여자 일지 子(자)와 반합합니다.

9월
2027

기다리는 달 · 己酉(기유)

말이 날카로워지는 달



그 사람에게 말의 글자가 강하게 들어오는 달입니다. 표현 방식이 평소보다 날카로워집니다. 그동안 못 했던 말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경쟁의 글자가 들어옵니다. 일에서든 사람에서든 신경 쓰이는 누군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나는 사이에서 그 사람이 불만을 꺼낸다면

끝까지 들어 주세요. 이것이 관계가 나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해결책도 내놓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그랬구나. 그때 많이 힘들었겠다. 말해 줘서 고마워.

헤어진 상태에서 온 불만이라면 사과하고 물러나세요. 다시 연락하지 않습니다.

질투가 올라올 때

그 사람 곁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확인하려 들지 마세요. 소식은 사실이 아닐 수 있고, 사실이어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사주로 보면 2027년 9월 己酉(기유): 여자에게 酉(유)는 상관입니다. 남자에게 己(기)는 정인, 酉(유)는 겁재입니다.

10월
2027

기다리는 달 · 庚戌(경술)

고집이 세지는 달



당신과 같은 글자가 들어오는 달입니다. 내 방식이 옳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가기 쉬운 달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말하고 표현하는 쇠가 또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말하려 하는데 당신은 고집이 세지는 달입니다. 부딪히기 딱 좋습니다.

이달의 점검표

몇 달 동안 지켜 온 것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 [ ] 힘든 얘기에 해결책부터 말하고 있지 않나요?
- [ ] 연락이 다시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 [ ] "괜찮아"로 넘긴 일이 있지 않나요?
- [ ] 침묵 앞에 그 한 문장을 붙이고 있나요?

혼자라면

이달에는 나를 위해 시간을 쓰세요. 미뤄 둔 일을 하나 끝내 보세요.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다지는 달로 쓰면 됩니다.

사주로 보면 2027년 10월 庚戌(경술): 남자에게 庚(경)은 비견, 戌(술)은 편인입니다. 여자에게 庚(경)은 식신입니다.

11월
2027

기다리는 달 · 辛亥(신해)

한 해를 결산하는 달



이달의 글자가 당신의 곁 자리와 살짝 어긋납니다. 큰일은 없지만 작은 일로 피로한 달입니다. 한 해의 끝을 정리하기에 좋습니다.

만나고 있다면

두 분이 함께 지난 1년을 돌아보세요. 좋았던 것 하나, 아쉬웠던 것 하나씩만 말합니다. 앞으로의 약속은 그다음입니다.

만나고 있지 않다면

이 책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12월에 쓴 편지, 체크리스트, 숙제로 쓴 문장들을 다시 읽어 보세요. 1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어도, 한 해 동안 익힌 습관은 남습니다. 이것은 다음 사랑에서 당신이 가장 먼저 쓰게 될 힘입니다.

답이 없었다면 여기서 이 관계를 내려놓으세요. 2028년의 풀이는 그 사람이 스스로 연락해 올 때만 뜻이 있습니다.

사주로 보면 2027년 11월 辛亥(신해): 亥(해)가 남자 일지 申(신)과 해(害)입니다. 2028 戊申(무신)의 申(신)은 여자 일지 子(자)와 반합합니다.



제8부

뭐라고 보낼까

첫 문장이 재회의 절반입니다

첫 문장의 세 가지 규칙

그 사람은 말을 쌓아 두는 편이고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답하기 어려운 메시지를 받으면 닫아 버리기 쉽습니다. 첫 문장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규칙 하나, 세 줄을 넘기지 않습니다

긴 글은 "읽고 답해야 하는 숙제"가 됩니다. 당신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길어지기 쉽습니다. 쓴 뒤 절반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또 절반으로 줄이세요.

규칙 둘, 질문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잘 지내?"는 답을 강요합니다. "잘 지내길 바라"는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이 없어도 서로 민망하지 않은 문장이 좋습니다.

규칙 셋, 그 사람의 이야기로 씁니다

"내가 힘들어"는 내 이야기입니다. "그때 네가 힘들었겠다"는 그 사람 이야기입니다. 말을 쌓아 온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를 알아봐 주는 말**입니다.

1월에 보낼 첫 문장

세 가지 예시입니다. 지금 진심과 다르면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이 좋아하던 장소나 예전 일을 구실로 넣는 것은 받는 쪽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면

폭언, 폭력, 외도, 돈 문제처럼 큰 상처를 준 쪽이 나라면 사과도 연락입니다. 이 문장을 쓰지 말고 연락을 멈추세요.

문득 네가 그때 힘들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어. 그때 제대로 못 들어서 미안해. 잘 지내길 바랄게.

특별한 사건 없이 멀어졌다면

오랜만이야. 새해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

고마움만 전하고 싶다면

오랜만이야.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을 못 한 것 같아서. 잘 지내길 바라.

첫 문장의 목표는 재회가 아닙니다. 인사를 한 번 전하는 것뿐입니다.

사주로 보면 여자는 식상 0·비겁 3으로, 질문보다 답할 부담이 없는 문장이 맞습니다. 남자는 인성 3으로, 문장을 다듬되 한 번만 보내는 쪽이 맞습니다.

보내면 안 되는 문장

당신이 보내고 싶은 문장일수록 이 목록에 있을 수 있습니다.

- ✕ 나 진짜 많이 변했어
- ✕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 ✕ 나 요즘 너무 힘들어
- ✕ 왜 답이 없어?

- ✕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 줘
- ✕ 네가 그때 그렇게 말해서 나도 힘들었어
- ✕ 술 마셨는데 네 생각이 나서
- ✕ 나 아직도 너 사랑해
- ✕ 누구 만나?
- ✕ 그래, 잘 살아라

왜 안 될까요

"변했어"는 말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변화는 보이는 것이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는 그 사람에게 내 짐을 맡기는 말입니다. 그 사람도 자기 짐을 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특히 조심하세요. 당신에게는 평소 조용하다가 한마디로 끝내 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답이 없어서 서운한 밤에 이 문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그 사람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 보내고 싶은 밤에는 보내지 마세요. 그 문장은 아침에도 보낼 수 있습니다.

답이 왔을 때

어떤 답이 올지 미리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읽고 답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좋은 신호로도 나쁜 신호로도 해석하지 마세요. 다시 보내지 않습니다. 달력의 뒤쪽 달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응, 잘 지내" 짧게 왔다면

예의로 답했을 수 있습니다. 의미를 크게 두지 마세요.

응 잘 지내

다행이다. 연락 받아 줘서 고마워.

대화가 이어진다면

그 사람이 편한 만큼만 이어 가세요. 길어지면 당신이 먼저 인사하고 마쳐도 됩니다.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좋다. 오늘은 이만 들어갈게. 잘 자.

화가 담긴 답이 왔다면

이제 와서 왜 연락해?

이 답은 연락을 반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미안해. 다시 연락하지 않을게.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세요.

연락하지 말라는 답이 왔다면

알겠어. 잘 지내.

이 문장을 끝으로 **연락을 멈추세요.** 이것은 사주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만나자고 말할 때

1월의 안부에 그 사람이 답했고 대화가 편안했을 때만 해당합니다. 답이 없었다면 이 쪽은 건너뛰세요.

좋은 제안의 조건

- 시간이 짧습니다
- 낮에 만납니다
- 이유를 꾸며 내지 않습니다
- 거절하기 쉽습니다

> 괜찮으면 이번 달에 커피 한 잔 할래? 네가 편한 곳으로 정해 줘. 부담되면 안 해도 돼.

"부담되면 안 해도 돼"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절해도 된다는 뜻이고, 거절하면 그대로 멈춘다는 약속입니다.

나오겠다고 하면

시간과 장소만 짧게 확인합니다. 그날까지 다른 연락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돕는 작은 습관들

당신에게 필요한 기운은 나무입니다. 만나러 갈 때 초록색 옷이나 소품을 하나 지녀 보세요. 차분해진다고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재미로 해 보셔도 좋습니다.

제9부

다시 마주 앉는다면

같은 이별을 반복하지 않는 법



첫 만남 두 시간



두 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처음 십 분

안부만 나누세요. 어떻게 지냈는지, 일은 어떤지 묻습니다. 예전 일은 꺼내지 않습니다.

그다음

그 사람이 편해 보일 때, 당신이 먼저 이 말을 꺼내세요.

> 그때 네가 힘들다고 했을 때, 내가 제대로 듣지 못했어. 그게 제일 미안해.

실제 있었던 일을 넣어 당신의 말로 바꾸세요. 1부에서 떠올린 후회되는 한마디, 1부와 4부 숙제에서 쓴 문장, 12월의 편지에서 남긴 한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보내지 못한 말**입니다.

말한 뒤에는 **조용히 기다리세요.** 설명을 덧붙이지 마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끝까지 들으세요.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 "나 이제 달라졌어"라고 말하기

- 그 사람의 잘못을 꺼내기
- 그 자리에서 결론을 물어보기

헤어질 때

"오늘 나와 줘서 고마워." 이 말이면 됩니다. 다음 약속은 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날 밤 문자도 하지 마세요. 다음 날 짧은 인사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만난 뒤의 석 달

다시 시작한 뒤 초반에는 옛 습관이 돌아오기 쉽습니다.

당신이 지킬 세 가지

침묵 앞에	해결 전에	일주일에 한 번
한 문장	**먼저 듣기**	**먼저 챙기기**

하나, 침묵 앞에 한 문장을 붙입니다. "생각 좀 정리하고 저녁에 말할게." 이 말만 해도 그 사람은 혼자 기다리지 않습니다.

둘, 해결하기 전에 먼저 듣습니다. 그 사람이 힘든 얘기를 하면 첫마디는 "그랬구나"입니다. 해결책은 그 사람이 물어볼 때만 말합니다.

셋, 일주일에 한 번 먼저 챙깁니다. 큰 선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듯 말한 것을 기억해 주는 일입니다. 없는 글자는 습관으로 채웁니다.

두 분이 함께 정할 세 가지

하나, 서운한 일은 사흘 안에 말합니다. 쌓이면 문이 닫힙니다.

둘, 싸움을 멈추는 신호를 정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올게" 같은 둘만의 신호입니다. 날카로운 말이 나오기 전에 멈추고, 늦어도 다음 날 다시 이야기합니다.

셋, 돈과 가족 이야기는 차분한 날에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두 분의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화난 날에는 꺼내지 않습니다.

> 사랑을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조금 더 하는 것입니다.

쉬어 갈 달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두 분의 사주에는 해마다 부딪히는 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곁 자리를 치는 달은 해마다 **6월**에 옵니다. 당신의 곁 자리를 치는 달은 해마다 **2월**에 옵니다.

이 달에는 서로 예민할 수 있습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 요즘 좀 예민한 것 같아. 말이 세게 나올 것 같으면 잠깐 쉬고 올게.

집안 문제는 미리 말하세요

당신의 집안 자리가 그 사람의 곁 자리에 걸려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당신이 먼저 물어보세요.

이번 명절에 우리 집 일로 네가 불편한 건 없어? 있으면 말해 줘.

제10부

그래도 안 된다면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답이 끝내 오지 않는다면

이 쪽을 읽고 계신다면 많이 애쓰셨다는 뜻입니다.

답이 없는 것도 답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것을 인정해야 당신의 삶이 다시 움직입니다.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번에 말을 했습니다. 어려웠던 사과를 했고, 서툴러도 마음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어도 그 일은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 사람이 당신을 떠올릴 때, 마지막 모습은 깔끔하게 물러난 사람일 겁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끝맺음입니다.

놓아주는 세 단계

첫째, 연락처를 정리합니다. 그 사람이 연락을 바라지 않는다면 지우는 쪽을 권합니다.

둘째, 사진을 치웁니다. 사적인 사진은 삭제하고 누구에게도 보내지 마세요.

셋째, 편지를 다시 씁니다. 이번에는 고마웠던 일을 적습니다. 고마운 일이 없다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보내지 않습니다.

> 놓아준다는 건 잊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 없이도 나를 돌보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인연은 언제 올까

그 사람과 상관없이 당신에게 들어오는 인연의 기운도 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때, 2027년 5월

앞에서 말씀드렸듯 이달은 당신의 본바탕과 곁 자리가 함께 맞물립니다. 그 사람과의 일이 어떻게 되든, 이달에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있다면 나가 보세요.

큰 흐름, 2030년대

2032년부터 당신의 다음 10년이 시작됩니다. 지금의 뺏기고 배우는 시기가 지나고 책임과 자리를 얻는 시기입니다. 2034년과 2035년에는 당신에게 없던 나무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곁 자리가 부딪히는 해이기도 해서 서두를 때는 아닙니다.

사주로 보면 남자 54세 대운 庚午(경오)(천간 비견, 지지 정관). 2034 甲寅(갑인), 2035 乙卯(을묘)는 재성의 해이며, 寅(인)은 일지 申(신)과 충, 卯(묘)는 일지 申(신)과 원진입니다.

다음 사람을 만나면

이 책에서 배운 건 그 사람에게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 침묵 앞에 한 문장 붙이기
- 해결 전에 먼저 듣기
- 먼저 챙기기

다음 사람에게 이것을 해 줄 수 있다면, 이번 이별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지 못한 말을 다음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하시면 됩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꼭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쇠로 태어난 당신은 혼자서도 잘 버티는 사람입니다. 다만 나무가 필요합니다. 자라는 것, 돌보는 것을 곁에 두세요. 화분 하나, 강아지 산책,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도 나무입니다. 당신 안의 빈칸은 꼭 연인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을 덮기 전에

긴 책을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돌아온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이제 네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 그 사람이 왜 잊히지 않는지
- 어디에서 부딪히기 쉬운지
- 언제 움직이고 언제 멈출지
- 뭐라고 말할지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쇠는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쇠도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 그 사람이 들을 마음이 있다면 말을 하세요. 들을 마음이 없다면 그 말은 종이에 남기고, 다음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하세요.

이 문장들을 기억해 주세요

-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밖으로 나오는 길이 좁은 사람입니다
- 든든해서 좋아했는데 든든하기만 해서 외로웠던 사람
- 침묵 앞에 한 문장만 붙이시면 됩니다
- 답이 없거나 거절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 책에는 그 사람의 정보가 들어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지 마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책 대신 이름만 알려 주세요. 사람마다 여덟 글자가 달라서 친구의 책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 책은 전통 명리 해석을 바탕으로 한 참고 분석서입니다. 미래를 보장하지 않으며 법률, 의료, 재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맑은하늘사주

받는 분: 남자 님 · 태어난 때: 1979년 12월 19일 21:00 양력 · 지은 날: 2026년 11월 5일